

[연합뉴스]건국대, KU 중국기업연구소 신설(2014.02.20)

건국대는 교내 KU 중국연구원 산하에 KU 중국기업연구소를 신설하고 20일 새천년관에서 창설 기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U 중국기업연구소는 중국과 중화권 기업을 국영·교관·민영·가족·벤처·다국적·화교기업등 7개 유형으로 세분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국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미나 주제는 '중국의 창의·혁신형 창업 발전 및 한·중 협력 모델'이었으며, 중국 칭화대(淸華大)가 주도한 '산·학·연' 창업 모델 '칭화지주회사'의 쉬징홍(徐井宏) 이사장과 중국의 대표엔젤투자자 류즈쉬(劉志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앞으로 칭화대, 남경대 등 중국 명문대와 한·중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작사업을 개발할 것"이라며 "양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건설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